

칼럼

건설산업의 리더는 누구인가



김예상

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(성균관대 교수)

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이었던 4대강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. 이미 완공된 보를 철거하네 마네 대선 때 이슈로 떠오르더니, 연초에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부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. 여기에 국토해양부는 억울하다며 반박에 나서고….

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현실과 위상에 대해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. 이 사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.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, 나아가 과연 감사원이든 국토해양부든 문제의 진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. 그러나 쓸쓸함의 이유는 이것이 아니다.

최근 들어 필자는 이런 글을 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삼는 주제가 있다. 더 이상 건설산업을 천덕꾸러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위상을 되살려보자는 것이다. 그런데 앞서 언급한 감사원과 국토해양부의 공방을 지켜보자니 이견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과 위상 문제 이전에 무언가 더 크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우선 이번 사건은 정책의 잘잘못과는 거리가 먼, 그야말로 '건설'이 핵심인데 주인공이 없다는 것이다. 어느 전문가나 엔지니어, 시공사가 국민 앞에 나서서 "이건 이렇습니다"라고 말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다. 이번만이 아니라 뉴스와 신문에 건설과 관련된 사건,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마찬가지였다. 무너지고 사고가 나니 그저 죄인

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?

더 심각한 문제는 그 주인공들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. 다른 산업의 예를 드는 것이 썩 적절치는 않지만, 8만~9만명 의사들을 대변하는 의사협회와 6만명 규모의 약사들을 위한 약사협회가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하게 세 싸움을 하는 사례가 떠오른다.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표를 의식해서인지 눈치 보기에 바쁘다. 현대 종사자가 170만명이 넘는다는 건설산업을 놓고 이런 광경을 꿈이나 꿀 수 있었던가? 과연 부실과 비리의 오명을 벗겨내고 우리 산업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대변할 리더가 있기는 한 것일까? 많은 건설인들이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하지만, 리더가 없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까?

불행히도 우리 산업의 리더가 누구냐는 질문에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정답은 없어 보인다. 그 많은 협회도, 행정관서도, 학회나 교육기관도 리더라 명함을 내밀기에는 그 면모가 턱없이 부족하다. 하지만 산업 발전에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건설산업이 필요로 하는 리더의 조건을 설계하고 산업 구성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. 위기가 기회라고, 이제라도 이러한 논의부터 시작한다면 새로운 희망은 언제든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?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건설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. 그러나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변화보다는 건설산업의 리더를 바로세우는,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. CERIK